

# “군산경제 파탄 전적으로 文 정부 탓”

### 김종희 의원, 경제회생 본부 설치·주 1회 현장회의 주재 강력 촉구

민주평화당 김종희 전북도당 위원장은 위기의 군산 경제 회생을 위해 “총리-기재부장관-산자부장관이 군산에 ‘경제회생 본부’를 설치하고 목표를 달성할 때 까지 무기한 현장회의를 개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국회 개혁을 위해 특수활동비의 전액 폐지를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군산시청에서 개최된 민주평화당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완전히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귀결되고 있으며 폐업자와 실업자의 피눈물과 고통 섞인 신음 소리가 방방곡곡에서

넘쳐나고 있다”고 말하며 “군산과 전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장 줄도산의 직격탄을 맞은 최대 피해지역”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군산경제 파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탓”이라며 “벌써부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자동차 군산공장이 문을 닫은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이며 다른 지역은 수십 조 원을 쏟아 부어 살렸으면서 유독 군산과 전북의 공장만 폐업의 길로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결방안은 딱 하나다. 대통령이 죽인 경제를 대통령 말고 살릴

사람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군산경제 회생에 전념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총리나 기재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 군산에 ‘경제회생 본부’를 설치하고 경제 회생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며 “총리나 기재부장관, 산자부 장관이 1주일에 한번씩, 군산과 전북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군산에서 현장지휘를 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벼랑 끝에 내몰린 군산과 전북경제를 살리려면 대한민국 경제 역시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총리나 기재부장관, 산자부장관이

군산과 전북,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산에 ‘경제회생 본부’를 설치하고 목표를 달성할 때 까지 무기한 현장회의를 개최하라.”고 요구하며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 김 위원장은 “고도의 기밀과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특별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특별비는 모두 폐지하는 것이 촛불민심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평화당이 국회의 특별비 전액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해 개혁정당이라는 좌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20대 국회가 개혁의 기관차로 거듭나는 도화선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마무리 했다.

/김진성 기자

### 이해찬, 자치분권 공약 발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2일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를 위한 자치분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주민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3대 자치권이 보장된 ‘자치분권 개헌’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더불어 당내 지방자치특별기구(지방자치 연구소 등)를 설치하여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정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강력한 재정분권 계획도 제시했다. 국세, 지방세 구조를 개선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문재인 정부의 143개 지역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당에서 예산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진성 기자



평화당, 지엠 군산공장 현장회의

22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집행부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문에서 현장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정운천, “혁명 일으킬 터”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22일 “당대표가 되면 전북은 새천년의 역사를 새로이 써내려갈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선거혁명을 만들어준 전북도민의 에너지로 중앙무대에서 대한민국의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아이콘’을 강조한 정 후보는 이날 전북지역의 공약을 발표하며 자신이 당대표 적임자임을 부각시켰다.

그는 “기금운용본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전북의 미래먹거리 새만금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 식용곤충 의료분야 활용 방안 찾는다

### 김광수 의원 정책세미나 개최 곤충산업 관계자 150명 참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래 대안 식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용곤충 분야의 의료분야 활용 가능성과 상용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식용곤충 의료분야 활용과 상용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김광수 의원은 “곤충산업이 미래산업의 새로운 ‘블루칩’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운을 뗐 뒤 “지난 2013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2050년에는 세계인구가

90억명에 달해 현재보다 두 배 이상의 식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식량으로 곤충이 대두되며 식용곤충의 산업화는 세계적 이슈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함께 국내 곤충산업 규모도 2015년 3,039억원에서 2020년 5,36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곤충사육농가 역시 2015년 724호에서 지난해 2,136호로 증가했다”며 “최근 애기뿔소뽕구리로 부터 ‘코프리신’이라는 신물질들이 분리에 피부재생 및 염증 치유 효능이 있는 화장품이 개발되고, 왕지네로부터 아토피 피부염 치유에 효능이 탁월한 항생물질 ‘스플라렌드라

신’을 찾아내는 등 곤충에 대한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아지면서 경제발전은 이를 신성장 부가가치산업으로도 각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양요봉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귀뚜라미 박사’로 널리 알려진 이상구 박사가 ‘식용곤충 의료분야 활용과 상용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세미나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주최하였으며, 곤충산업 관계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해 식용곤충의 의료분야 활용과 상용화 방안 마련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김진성 기자

# 도 미세먼지 예방·저감 ‘고심’

### 도의회 행자위, 정책 토론회 조례안 제정 전 의견 수렴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2일, 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이 좌장으로 진행을 맡았고 이명연 도의원(전주11, 환북위)이 발표, 박용근(장수, 행자위),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양영철(전라북도청 자연생태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진행했다.

좌장을 맡은 국주영은 위원장은 “많은 도민들께서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시고 우리가 많이 전라북도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역설하며 “오늘 토론회는 그동안 준비해온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표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논의된 사항은 조례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다.” 밝혔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이명연 의원은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며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호흡기질환, 눈 질환,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고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대로라면 조만간 공기를 사 마시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우려와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라북도가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는 생각으로 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용근 의원은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사무처장은 ‘10년 전만 해도 전북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국에서 상위에 속하는 지역이 됐다’고 지적하며 ‘조례에서 규정한 도지사의 책무에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고농도 일수 증가에 대한 조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도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도민실천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진성 기자

# 국회 환노위, 소위 구성 완료

### 이정미, 고용노동소위 배제에 반발 ‘잡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3개 교섭단체 간사 합의를 토대로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배제돼 잡음이 일고 있다.

여야는 환경소위원회에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예결소위원장 겸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을 선임했다. 4개 소위 위원도 정했다.

아울러 여야 3개 교섭단체는 고용노동소위 위원을 전반기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는 것도 합의했다. 소위 위원은 민주당 4명(김태년·윤호중·이용

득·한정애), 한국당 3명(임이자·신보라·이장우), 바른미래당 1명(김동철) 등 여야 동수로 구성했고 전반기 소위 위원이었다 이 의원은 배제됐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8명으로 줄여서 정의당에 의석을 주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판단밖에 들지 않는다”며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에 입성한 후 환노위 법안소위에 배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재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본인이 원하는 위원회로 가기에 어렵고 위원장은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뉴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2018 대한민국 대표축제 축하! 전주매일 창간

www.firefly.or.kr

제22회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무주 반딧불축제

The 22nd Muju Firefly Festival

2018. 9.1 ~ 9.9 일

무주군일원 남대천, 지남공원 반딧불전통공예문화촌 등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45 · 문의, 063)320-5004-17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